

행정안전부, 마을·시장·골목 활력 찾는 '지역특성 살리기 사업' 공모

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
2023.4.30.

행정안전부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0억 원 규모의 '지역특성 살리기 사업' 공모를 진행하였다.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 확대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기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광역·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▲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▲지역특성 활용 로컬 디자인 ▲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▲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▲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과제로 추진된다.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, 7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3분기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이 로컬 유학생활 기반 조성,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, 워케이션 등 지역의 체류형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'고향올래(GO郷ALL來)사업'과 상호 보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	지역 대표자원 활용 경관개선 등 정비 통한 유동인구 유입
② 지역특성 활용 로컬 디자인	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미관개선으로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
③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	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
④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	실내놀이터 등 편의시설 조성 통해 낙후된 이미지 및 접근성 개선
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	고밀도·저밀도 지역 구분으로 상권 특성화 및 상권의 공동체 기능 지원